

동물 가족과 가족 정상성의 서사 전략

- 인간 중심적 가족 규범의 매개로서 동물

김시연*

1. 들어가며
2. 고전 서사 속 동물: 인간의 상징적 어머니
3. 동물, 인간의 '가짜' 자식
4. 동물 가족이 매개하는 가족 정상성의 서사
5. 나오며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오늘날 비인간존재 중에서도 동물이 '가족 서사'의 틀에서 활발히 재현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가족 정상성의 서사 전략에 동물이 동원되는 양상과 효과를 살핀다. 동물과 같은 비인간존재를 인간 가족 서사의 패턴화된 틀로 해석하고 재현하는 작업은 이 가족 정상성의 서사가 가족과 관련된 규범적 담론으로 기능하는 새로운 측면을 드러내는데, 인간 아닌 존재를 '인간적' 서사로 재현함으로써 그 '인간적' 가치의 '보편성'이 일견 효과적으로 부각되는 한편, 비인간존재를 경유한 인간중심성이 더욱 노골화되기도 한다.

먼저 고전 서사 작품에서 동물을 가족적 관계로 상상해온 한국의 서사적 전통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어지는 장에서 논할 오늘날의 서사적 경향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이 인간과 동물 관계에 대한 사고의 근본적인 변화 위에 이루어진 사실을 짚어낸다. 뒤이어 가족 정상성의 규범에 합치하는 ‘합당한’ 가족 서사를 구성하려는 대통령 부부의 서사 전략을 주된 텍스트로 삼아 인간과 동물의 구도가 역전되어 인간이 거꾸로 동물의 부모로 스스로를 위치시키는 서사적 경향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에버랜드의 자이언트판다 ‘바오 가족’의 이야기가 대중적 인기를 이끌어낸 현상을 중심으로 동물 가족을 인간화된 역할과 감정, 규범으로 상상케 하는 서사의 효과를 분석한다.

이때 동물은 정상가족 규범과 젠더역할, 돌봄과 재생산에 관한 규범적 서사들의 한계를 고스란히 공유한다. 동물을 매개 삼아 인간 중심적 가족 규범이 더욱 노골화되는 장면들에 대한 주목을 통해 비인간존재에 대한 위계화와 타자화의 전략, 이를 통해 은폐되거나 정당화되는 인간중심적 규범에 대한 나아간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동물, 가족 서사, 정상가족, 인간중심성, 젠더 규범, 돌봄, 재생산, 비인간존재)

1. 들어가며

어떤 관계를 ‘가족’의 틀거리를 빌어 그리는 서사의 문법은 한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형태 중 하나다. 패턴화된 혈연 가족의 가족 서사가 일상적으로 활발히 생산될 뿐 아니라, 가족 바깥에서 접촉하는 친구나 동료, 하물며 가게의 종업원까지 가족 호칭으로 칭하는 문화가 보편화된 사회라는 것은 어떤 패턴화된 가족 관계와 역할의 코드가 모든 사회적 관계에 선행하는 문화적 맥락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뜻이다. ‘가족’은 자연발생적인 무엇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특정한 관계와 역할 수행을 내용으로 삼는 범주이나, 이러한 측면은 쉽게 가려지고 패턴화된 정상가족의 서사가 문화

적 보편의 위치를 점한다.

이때 비인간존재를 인간 가족의 틀에 포함하거나, 그들의 무리를 인간 가족의 패턴화된 틀로 해석하고 재현하는 작업은 이 가족 정상성의 서사가 가족과 관련된 규범적 담론으로 기능하는 또 다른 층위를 만들어낸다. 인간 아닌 존재를 ‘인간적’ 서사로 재현함으로써 그 ‘인간적’ 가치의 ‘보편성’이 일견 효과적으로 부각되는 한편, 비인간존재를 경유한 인간중심성이 더욱 노골화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오늘날 비인간존재 중에서도 동물이 ‘가족 서사’의 틀에서 활발히 재현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동물을 경유한 가족의 서사가 고전 서사 작품과 현대적 대중 매체 등 다양한 텍스트에 걸쳐 거듭되고 변주되는 양상을 폭넓게 검토한다. 오늘날 보편화된 동물 가족 서사의 형태를 역사적 맥락 위에 놓고 그 특수성과 변화상을 포착하기 위하여, 2장에서는 고전 서사 작품을 통해 동물을 가족적 관계로 상상해온 한국의 서사적 전통을 살핀다. 대표적으로 동물이 인간의 상징적 부모로 그려지는 양상에 집중하여, 이어지는 장에서 논할 오늘날의 서사적 경향이 인간과 동물 관계에 대한 사고의 근본적인 변화 위에 이루어진 것임을 드러낸다. 3장과 4장에서는 오늘날 동물의 서사가 ‘가족화’된 형태로 그려지는 양상을 두 축으로 나누어 각각 살피는데, 3장은 2장에서 살핀 인간과 동물의 구도가 역전되어 인간이 거꾸로 동물의 부모로 스스로를 위치시키는 서사적 경향을 다룬다. 가족 정상성의 규범에 합치하는 ‘합당한’ 가족 서사를 구성하려는 대통령 부부의 서사 전략을 주된 텍스트로 삼는다. 4장에서는 에버랜드의 자이언트판다 ‘바오 가족’의 이야기가 대중적 인기를 이끌어낸 현상을 중심으로 동물 가족을 인간화된 역할과 감정, 규범으로 상상케 하는 서사의 효과를 짚는다.

2. 고전 서사 속 동물: 인간의 상징적 어머니

한국의 서사 전통에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그려지는 것은 드물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이것을 오늘날 일상적 가족 관계의 문법으로 그려지는 동물의 서사와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기는 어렵다. 근대 이전부터 오랫동안 전승되어 온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인류의 시조모로서 동물에 대한 신화적 숭배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랜 전승 연원을 지닌 서사에서 인간은 동물과 결합하여 자식을 낳는다. 그러나 인간과 동물이 인간적 의미의 '부부'로 그려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동물은 인간의 이해나 통제 범위의 바깥에서 여전히 신이한 존재로서 경외와 숭배의 대상으로 남는다.¹⁾

인간이 동물의 자식으로 나타나는 이야기 가운데 한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단군 신화 속 웅녀의 이야기일 것이다. 천신의 아들과 결합하여 훗 인간의 어머니가 되는 곰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단일 민족'의 신화를 떠받치는 문화적 자원이자 헤게모니로 기능한다. 그 핵심에는 실체가 분명치 않은 '한민족'이라는 범주를 '곰의 자손'이라는 '상상의 공동체'로 묶어내는 '곰 어머니'의 존재가 있다.

이때 호랑이 한 마리와 곰 한 마리가 같은 굴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항상 신웅(神雄), 즉 환웅에게 빌어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이때 신웅이

1) 이 장에서 살필 텍스트들은 다층적 전승의 지형 위에 서로 다른 의미 지향을 갖고 맥락화되어온 것으로서, 한국 고전 서사의 맥락에서 개별 작품의 맥락이 보다 정치하게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어지는 장에서 검토할 현대적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인간과 동물 관계와 가족 서사의 재현 양상으로의 변화상에 주목하여, 텍스트 간 지향의 차이와 서사가 속화(俗化)된 정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거듭 변주되어 나타나는 인간의 상징적 '어머니'로서 동물에 대한 경외에 주목하여 분석한다.

신령스러운 쑥 한 줌과 마늘 20개를 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백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곧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이에 곰과 호랑이가 이것을 받아서 먹고 삼칠일(21일) 동안 조심했더니 곰은 여자의 몸으로 변했으나 호랑이는 금기를 지키지 못해서 사람의 몸으로 변하지 못했다. 웅녀(熊女)는 혼인해서 같이 살 사람이 없으므로 날마다 단수(壇樹) 밑에서 아기 배기를 축원했다. 환웅이 잠시 거짓으로 변하여 그와 혼인했더니 이내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바로 그 아기의 이름을 단군왕검(檀君王儉)이라 한 것이다.²⁾

인간 여성의 모습으로 변하여 인간과 결합하는 곰의 모습은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유동적인 신화적 사고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나카자와 신이 치는 근대적 개념의 '국가'가 탄생하여 인간이 '문명'을 자처하고 자연을 '야만'으로 타자화하기 전의 신화 시대에는 인간과 자연이 호혜적 관계 아래 공존해왔다고 설명한다. 종교적 의례를 통해 인간과 자연이 '대칭성'을 유지하고, 의례에서 연행(perform)되는 서사 속에서는 인간과 동물이 서로 분리되지 않은 존재로서 경계를 넘나들며 교류하는 관계로 나타나는 것이 신화적 사고의 근간을 이룬다.³⁾ 근대적 사고가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위계화하는 데 일조했다는 것은 동양적 전통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데, 관련해서 정향균은 인간과 동물이 상호 변신이 가능한 존재로서 재현되다가 변신의 가능성이 완전히 봉쇄된 것이 데카르트로 대표되는 근대 철학적 사고의 등장 이후라고 설명한다.⁴⁾

2) 일연, 『삼국유사』, 이민수 역, 을유문화사, 2013, 24쪽.

3) 나카자와 신이치, 『곰에서 왕으로-국가, 그리고 야만의 탄생』, 김옥희 역, 동아아시아, 2003, 15-17쪽.

4) 인간적인 것과 동물적인 것, 이성과 본능, 정신과 신체를 구분하고 위계화하는 이분법적 사고로 대변되는 근대 철학의 관점에서 동물은 인식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기계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운동만을 지속하는 열등한 존재로 위치해왔다. 정향균, 『동물 되기』, 세창출판사, 2020의 제1부 4장 「근대」를 참조.

인간의 어머니로 나타나는 곰의 모습은 신화를 비롯해 전설, 야담과 구전이야기 등 다양한 고전 서사의 형태로 변주되어 나타난다. 문헌에 기록되어 연대를 특정할 수 있는 것에서 구술 전승되어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와 채록된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어머니 동물의 형상은 다양한 시대와 맥락을 거쳐 여전히 생명력을 지닌 상징으로 존재한다. 중요한 사실은 서사의 여러 형태로 변주되며 신화적 시조모로서 곰에 대한 숭배의 맥락이 열어지고 속화(俗化)되는 양상을 보일지언정, 경외의 대상이자 인간이 그 속을 모두 파악하거나 장악할 수 없는 존재로서 동물을 바라보는 신화적 관점의 근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곰의 모습 그대로 인간과 결합하여 자식을 낳는 곰들의 이야기가 신이한 사건으로 묘사되는 동시에 오늘날 통용되는 ‘판타지’의 맥락으로 그려지지 않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이다.⁵⁾

그전에, 그전애가 아니라 아마 이것은 아 그 옛날이지. 곰이 시방 사람, 곰하고 사람하고 살았다는 애긴디 말이지, 아 여기 있어.(1)[조사자가 담배를 권하자 사양하는 말이다.] 저 지금도 가문 고마나루라고 이름을 지어 있어요. [조사자: 예.] 공준디 말요. 동넛가에 저짜 나루 건너갈 것 같으면 청양(2)[충남의 남서쪽에 위치한 군(郡).] 땅이고 나루 건너올 것 같으면 공주 땅이고요. 그서 한 사람이 청양서 사는디, 나무를 하러 강 건너로 가요, 나룻배를 타고서. 하루는 나룻배 타고 가서 나무를 하는디, 이 곰이 한 마리 나오, 나오도만 버쩍 엮고 갔어요, 엮고가서 굴 속으 들어갔어요, 그 곰이라는 것은 힘이 장사거든. 그닝가 앞서서 바우뚝을 막 큰 놈을 문앞이다 걸어놓

5) 이 장에서 다루는 한국의 ‘어머니 곰’의 형상과 그 서사적 계보에 대한 주목은 김혜정, 『『於野談』소재 〈암곰과 함께 산 麟蹄縣 백성〉 설화 연구』, 『동양고전연구』 제45호, 동양고전학회, 2011, 127-154쪽; 김유미, 「한국 설화에 나타난 곰의 문학적 형상화와 여성 - 〈곰나루〉와 〈곰과 함께 산 인제현 백성〉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40호,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20, 111-142쪽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바 있다.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의 관심을 이어받아 오늘날 동물 서사의 양상과 상이한 ‘가족 서사’ 속의 동물을 포착하기 위한 소재로서 ‘곰 어머니’의 서사적 계보에 주목한다.

고서는, 막어놓고서는 저녁일라 치며는 나가서 어디가 먹을 걸 갖다줘 먹고 사는데, 암곰이라, 곰이 암놈여. 그놈이 그서 멧 날을 살았던지 멧 날을 살았던지. 그서는 살고보니까 거그서 새끼 세 마리를 낳어. 곰한테 곰이 새끼 세마리를 낳는데, 이놈이 새끼 나기 전이는 말이지 새끼 나기 전이는 문을 꼭 바우로다 눌러놓고 멧기는디, 그러나 이 곰이 인저 저도 생각이 있었던 모양여. 자식까지 이렇게, 이렇게 낳고 히서 설마 도망가리야 허구서는 문을 열어놓고 멧겨, 고 기회를 봐가지고서는 정월이 나간뒤여 말여 나간뒤, 인자 도망와 가지고서 근게 마침 나룻배가 거그가 있어, 그 나룻배를 타구서 어지간히 중간쯤 건너간게 곰이 와본게 없거든? 도망가고. 그런게 본게 아 배를 타고 건너가. 배를 타고 건너간게 새끼를 데리고 대번 막 그냥 발로 다 그냥 막 굴르고서 이렇게 막 날뛰고 거시기 허다가서는 나중으는 굴 속으 들어가 새끼 세 마리를 가지고 나왔어. 나와가지고서는 새끼를 들면서 막 그냥 소리를 질르고 그러더니, 그때니 나중으는 결국은 돌아도 안 보고서나 간게는 새끼 세 마리가 그냥 물 속으 집어넣겨 죽여버리고 저도 물 속으 빠져 죽었어. 그레가지고서나 사람이 그렇게 가지고서 삼 년만인가, 거기서 곰하고 살고 나왔대야. 그리가지고서는 자기 집이 와가지고서는 자그 집이서는 어디 도망가서 인저 어디가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삼 년만이 들은게 얼마나 반갈 것여. [조사자: 예 그러지요.] 그런, 그런 사람이 있드래요. 그서 거그 갈라치며는 지금도 고마나루라고 이름이 있어요. 공주읍으서 저 청양으로 건너가도 저리... [조사자: 곰하나루?] 예, 고마나루. 그리서 고마나루라고 이름을 지었어요.⁶⁾

웅진 금강의 고마나루(곰나루)에 전해지는 지명 유래 이야기로, 이야기 속 곰은 곰의 모습 그대로 나무꾼과의 사이에서 새끼를 낳고, 나무꾼이 달

6) <고마나루(곰나루)의 유래>, 『한국구비문학대계』 DB, 1982.7.31., 접속일: 2024.5.15., https://kdp.aks.ac.kr/inde/indeData?itemId=14&q=query%E2%80%A0%EA%B3%A0%EB%A7%88%EB%82%98%EB%A3%A8&id=POKS.GUBI.GUBI.1_1083&pageUnit=10&pageIndex=1.

아나자 새끼들과 함께 강에 빠져 죽는다. 이렇게 죽은 곰의 낯은 ‘웅진(熊津)’, 즉 ‘고마나루(곰나루)’라는 지명 이름이자 강의 신으로 남아 여전히 수 신제의 대상으로 기려지고 있다.⁷⁾

토템 동물로서 곰이 인간의 선조로 등장하는 모티프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드물지 않게 발견되는 것인데, 아오루구야 에벤키족에 전승되는 암곰과 사냥꾼의 이야기나 인간 여성이 곰의 아이를 밴 이야기, 위구르족과 다구르족의 곰 신화 등이 그렇다.⁸⁾ 만주의 오로첸족에게는 곰이 새끼를 반으로 갈라 나무꾼에게 던져, 나무꾼이 데려간 반은 인간이 되고 곰이 데려간 반은 곰이 되었다는 유사한 이야기가 전해진다.⁹⁾ 인간의 시조가 된 이들 소수민족의 신화와 달리 곰나루 전설의 곰이 물에 빠져 죽는 결말을 맞는 것은 더이상 토템이 아니게 된 단계의 곰의 위치를 반영한 서사이지만¹⁰⁾, 곰이 인간과 결합하여 자식을 낳는다는 모티프는 변하지 않은 채 여전히 신이한 사건으로서 서사화되고 있다는 데에서 이 이야기가 지닌 신화적 사고의 흔적이 발견된다.

비범한 역사 인물의 출생담에서 그의 어머니로 등장하는 곰의 이야기는 어머니로서 곰이 아우르는 대상이 보다 축소된 양상을 보여준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에서 조선에 파견된 장수 이여송은 구전이야기와 야담을 아울러 다양한 고전 서사의 소재가 된 인물인데, 그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로 그의 아버지가 조선에서 곰과 교혼하여 그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구술로 전승되고 있다.

7) <공주‘고마나루 웅진단 수신제’>, 『투데이충남』, 2019.4.18., 접속일: 2024.5.15., <http://www.todaychungnam.net/news/articleView.html?idxno=91279>.

8) 김선자, 『중국 소수민족 신화기행』, 안티쿠스, 2010, 366-369쪽.

9) 김선자, 위의 책, 370쪽.

10) 김선자, 위의 책, 317쪽.

(가) 그래서 인제 자기 마누랄 저 인제 큰 방에 있고, 사랑에서 혼자 인제 앉아서 있다보니께 한밤중이 대강 한밤중이 됐는데 아, 이 누가 푹 곰이 하나 오더니 고만 뒤 뒤집어 엮고서 그만 어디로 가는지 고만 내려가. 게 어딘지 모르고 인제 간 뒤에, 돌문이 있더라는 기여. 돌문이 있는데 돌문 속에 썩 돌문 열고 들어가더니 닫으면은 사람의 힘으로는 돌문을 열 도리가 없는 기여. 게 그래서 보통 때가 되면 어디가서 밥을, 밥상을 가져오는지 좌우간 진주성찬을 갖다준단 말야.(2)[곰이.] 그래 먹구서 아 인제 한 해 살아, 두 해 살아 인제 곰하고 교환이 됐어. 곰하고 살게 됐단 말이여. 게 첫번에 낳은 것이 이여승이라. 게 두번에 고 두째는 딸을 낳어, 여매(如梅)라구. 게 세째는 여백(如伯)이라고. 인제 삼 남멜 낳단 말이여. 그래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첫째 왁 먹고 사는 건 없는데 아 이거 뭐 한대바람을 썩어 어떡하든지 하지. 게 곰더러 그랬어. 그 곰은 사람 말을 알아 듣는다 말이야.

“아 이왕 살라른 이 평생을 그렇게 살 사람이 그 문 좀 열어라.”

그런데, 그때 이여승이 난지가 열 살이, 아메 일곱 살이가 되고, 여매가 삼 남멜 낳서 여나무 살. 맏이는 여나무 살 되고, 그 딸 낳고, 이래서 있는데 암만해도 여길 빠져나가야 되겠는데, 빠져나갈 도리가 없어. 게 문을 열어 놓고 인제 몇 해 살고, 삼 남멜 낳고 이래 이랬으니께 정신이 참 인제 설마 안 그러지 싶어서,

“문 좀, 답답하니 문 좀 열어놓라.”

그랬어. 게 문을 간신히 사람 인제 들락날락하도록 요래 [두 손바닥을 조금 띄워 들고] 요래 문만 열어 놓드라고. 그러고 나간단 말이여. 암만해도 문 열어 놓는데 안 되것어. 그만 삼 남멜 데리고서, 자기 고향 성주(星州)로 오는 기여.¹¹⁾

(나) 눈이 기양 오는데, 난데없는 곰이 한 바리 날라오는데 그러이 사람

11) <사람과 곰의 아들인 이여승(李如松)>, 『한국구비문학대계』 DB, 1982.7.24., 접속일: 2024.5.15., https://kdp.aks.ac.kr/inde/indeData?itemId=14&q=query%E2%80%A0%EC%82%AC%EB%9E%8C%EA%B3%BC%20%EA%B3%B0%EC%9D%98&id=POKS.GUBI.GUBI.1_9948&pageUnit=10&pageIndex=1.

이 질로 말하자마 열 질 되까 스무 질 되까 이런 덩이 있는데, 빅설이(2)(벼랑이) 섰는데. 그 치쟁이 짐을 빗기뿌고, 이여송이 저거 아버지라. 짐을 빗기뿌고 안고 풀쩍 뛰올라가는기라 고계, 심이 시기를(3)(힘이 세기를) 곰이 제일 따야 걸어댕기는 제일 심이 시다 카거든 동물이. 그래 올라가인께네, 자기는 아까 한 바와 같이 자기 곰이 암곰이라. 자기 드가는 데는 물고 있고 온갖기 다 있는데 여 곰은 밖에 자고 치쟁이, 이여송 저거 아버지 되는 사람은 그 때 이여송이 안 낳는 기라. 저거 아버지 되는 사람은 안에 있는데, 그래 참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이여송 저거 아버지가 치재이 영감이 니러올라 캐도 널째 죽겠고(4)(떨어져 죽겠고) 오도 가도 못해서 그 시월을 넘기는데. 그래 참 암곰이 그때 말하자만 참 그 보통 그 새끼 놀 때(5)(날을 때) 되서 그렇던지 이여송 저거 아버지 치재이 영감이 드갔는 기라. 드가 인끼네 참 남녀 구별하지만은 그래 놓이께네 드가 놓이끼네 서로 참 양기가 통해가지고 그 동품이 됐는기라. 곰강 사람강. 동품이 되가지고 일 년이 지나인께, 아 머시매를 하나 놓는 기라. 암곰이. 그러이 암곰이 장 영감을 별이다 먹이는데, 산에 가서 짐승을 잡아가 갖다 주고 생식도 하고 화식도 묵고 이라는데.

(중략)

“아버지요.”

“와.”

“내 말 들어야 우리가 사지 내 말 안 들어마 못 삽니다.”

이카거던 이여송이가.

“그래, 내가 팔마 질마(6)(팔만 길면) 동상 둘 업겠는데 아버지강 서이 업 겠는데, 팔이 짧라 안 자래가인꺼네,(7)(팔이 짧아 닿지 않으니까) 내 석광이강 아버지가 업고 내가 대국 땅을 임진강을 건너 대국 땅에 가서 사는데, 여계 있으마 우리 오마 되는 사람이 짐승인데 무리하고 무도하인꺼네 짜 죽인다.”

(중략)

이카고 갔는데. 참, 임진강을 뛰 넘어서 대국 땅에 들어서인꺼네 참, 곰이 암곰이 와서 왕비 될 아를 안고 와서 아우성을 이래 치인꺼네, 다리를 하

나 째가지고 하나를 지 씹어 묵고 하나를 저거 아버지를 떼져 좇냈는 기라.
바다로. 강을 떼지준꺼네,

“해해, 참 아버지 돌보지 안 돌봐서 마 가가는데, 가 가마 내일이나 모레
나 있다가 내가 업고 올긴데 왜 그래 돌아봤십니까?”

이카이께네, [조사자 : 아! 저거 아버지 돌아봤네 그런께.]돌아봤머
리,(11)[(돌아 보았기 때문에)] 돌아보인꺼네 다리 하나를 째 지 묵고 하나
를 떼졌다 카이 저거 아버지로. 그랬는데, 그래고 왕비 될 아를 죽였인꺼네,

“아버지 안 돌봤어마 저 내가 내일이나 모레나 가 올긴데 오마 없이마가
올긴데 와 그랬오?”

그래서 이여송이가 한국 사람인데 거어 가서 인자 대국 땅 가서 대국 이
여송이라꼬, 인자 이바구하는 그 이바구라. 나기는 이여송이 한국 사람이라
요.¹²⁾

(가)와 (나)는 1980년대 초반 충북 영동군과 경북 달성군에서 연행된 이
야기를 채록한 것으로, 마을의 남성들이 조사자들 앞에서 지역 전설이나
인물, 역사적 사건 등에 관한 이야기를 연행하는 흐름에서 임진왜란과 관
련된 인물인 이여송의 출생담을 이야기한 장면이다. 이 장면에 이르러 고평
어머니는 ‘이류교혼’ 모티프 혹은 ‘아래자 설화’ 등의 이름으로 알려진 유명
역사 인물의 출생담 속 동물 어머니·아버지와 궤를 같이 하게 된다. 금돼
지의 아들인 최치원의 이야기나 지렁이의 아들인 견훤의 이야기와 같이,
신성한 동물과의 결합으로 인간이 태어났으며 인류나 민족의 시조가 아니
라 비범한 개인의 (상징적) 부모로 동물이 위치하는 것이다.

12) <이여송의 출생담>, 『한국구비문학대계』 DB, 1983.9.4., 접속일: 2024.5.15.,
https://kdp.aks.ac.kr/inde/indeData?itemId=14&q=query%E2%80%A0%EC%9D%B4%EC%97%AC%EC%86%A1%EC%9D%98%20%EC%B6%9C%EC%83%9D%EB%8B%B4&id=POKS.GUBI.GUBI.1_16336&pageUnit=10&pageIndex=1.

서사의 세부에 차이가 있을지라도 두 이야기는 꿈에게 납치되어 동굴에서 자식 셋을 낳고 살던 이여송의 아버지가 꿈이 방심한 사이 동굴에서 도망하여 명나라(대국)로 간다는 골자를 공유하는데, 뒤따르는 이여송의 비범한 능력과 전쟁에서의 활약에 관한 이야기의 전사(前史)로 위치하면서 이여송이 꿈의 자식이라는 요소는 그의 신성한 출생과 남다른 능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의미화된다. 이야기가 채록된 정황은 인간과 동물의 결합에 관한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마을을 대표하여 지역 전설을 연행할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는 남성들에게 ‘지식’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었음을 짐작케 한다.¹³⁾

꿈 어머니에 관한 매우 세속화된 단계의 서사에서도 인간을 제압하는 압도적 힘을 지닌 신성한 동물로서 꿈의 이미지와, 꿈에게 선택되어 결합하는 인간이라는 모티프는 사라지지 않는다. 조선 중기의 문신 유몽인이 엮은 야담집 『어우야담』에 수록된 〈곰과 함께 산 인제현 백성〉이라는 이야기인데, 나무 하던 사람 앞에 곰이 나타나 동굴에서 함께 살다가 곰이 방심한 틈을 타 도망한다는 이야기의 골자는 역시 같으나 이 이야기 속 나무꾼과 곰에 대한 묘사는 신화적 모티프로 등장했던 꿈 어머니에 관한 것과는 상이하다.

가정(1522~1566) 연간에 강원도 인제현 백성이 산에 들어가 나무를 하다가 검은 곰을 만났다. 곰이 그 백성을 밟아 눌러서 그는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했다. 한참 후에 위를 올려다보니 곰의 음부가 마치 여인의 그것과 같아서 손톱으로 긁어 주었다. 곰은 한참 동안 무척 좋아하며 벌떡 드러누

13) 『한국구비문학대계』 조사의 조건과 연행자의 특성에 대한 연구로 다음을 참조. 김영희, 「구전이야기 현지조사연구의 문제와 시각」, 『구비문학연구』 제17호, 한국구비문학회, 2003, 451-500쪽; 김영희, 「구술 전승 현장 분석의 시각 전환을 위한 시론-‘연행 주체’는 누구인가」, 『민속연구』 제22호,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11, 5-64쪽.

운 채 백성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곰과 함께 남녀의 즐거움을 나누고 말았다.

곰은 그를 매우 사랑해서 굴 속으로 데려가더니 큰 돌로 보루를 쌓아 우리처럼 만들어 그를 가두었다. 그리고 매번 밖에 나갈 때마다 집채만 한 큰 바위를 들어 그 입구를 막아 놓았다. 곰은 작은 풀을 뜯어 와 깔개를 만들고 산중의 온갖 과일을 따다 주었는데, 진기한 것들이 요기를 할 만했다. 며칠을 지내자 곰이 또한 신령한 동물인지라 사람의 말을 알아들어서 백성이 말했다. (후략)¹⁴⁾

여기에서 곰은 성기를 희롱하는 남성의 행위에 매달리는 여성으로 재현된다. 곰의 성기가 인간 여성의 것과 같다는 나무꾼의 관찰은 곰을 인간 여성과 나란히 놓는 동시에 인간 여성과 암곰의 존재를 모두 성기로 축소한다. 그리하여 곰이 나무꾼을 동굴로 데려가는 행위는 섹슈얼리티의 위계에서 인간 남성을 절대적 우위에 놓는, 여성 성욕에 관한 남성 판타지적 서사의 맥락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는다. 말하자면 이 이야기에서 곰은 '여성'이되 다소 낮설고 '야생적'인 상대로, 인간 여성과는 성적으로 다른 '재미'를 주는 대상이다.

곰과의 사이에서 자식을 두는 다른 이야기들과는 달리 이 이야기에서는 인간과 곰의 결합이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데, 나무꾼이 도망치고 난 뒤 죽은 곰의 동굴에 나무꾼이 다시 찾아가 재화를 가져다 팔아 부자가 되었다는 결말은 그들이 결합이 인류나 민족, 혹은 역사 인물의 탄생이라는 성스러운 의미로부터는 크게 떨어진 양상을 드러낸다. 이야기의 말미에는 이 사연을 들은 다른 사람이 마찬가지로 부자가 되고 싶어서 산에 들어가 음부를 드러낸 암곰과 접촉하려 했다가 곰에게 죽임당하는 내용이 이어진

14) 유몽인, 『어우야담』, 신익철·이형대·조유희·노영미 역, 돌베개, 2006, 735-736쪽.

다. 도깨비를 만난 흑부리영감이 기지를 발휘해 흑도 떼고 부자도 된 사연처럼, 나무꾼이 암곰의 음부를 희롱한 일 역시 곤란한 상황에 재치있게 대응하여 부자가 된 사건으로 의미화되었다는 뜻이다. 동물과의 관계가 매우 세속화된 단계의 상상력이 반영된 이야기인 것이다.

맥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것은 인간을 제압하여 동굴로 데려가고, 그와 소통할 수 있는 신성한 동물로서의 곰에 대한 묘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곰에 대한 가장 속화된 수준의 재현에서도 인간은 곰을 물리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완전히 파악하거나 통제하고 있지 않고, 한순간 암곰을 성적으로 희롱하여 죽을 고비를 넘겼을지언정 곰과의 관계에서 우위에 서지는 못한다. 어머니라는 역할이 탈각되었을지라도, 이들 서사에서 곰은 여전히 인간이 정복하거나 지배할 수 없는 대상이다.

곰에 관한 세속화된 서사에서 그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사라진 것과 별개로, 인간의 상징적·은유적 어머니로서 동물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서사적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다음은 〈해와 달이 된 호랑이〉로 알려진 구전이야기의 한 대목이다.

범은 낸을 잡아먹구 낸에 수건을 쓰구 낸에 저고리와 초매를 입구 그 낸에 집이 가서 “아가야 오마니 왔다. 문 열라”구 했다. 목소리가 저에 오마니 목소리가 아니어서 우리 오마니 말소리 아니다 하멘 문을 열어 주디 않으니 꺼니 범은 내레 먼길을 오멘 바람을 많이 췌서 목이 췌서 그르다구 했다. 아털은 “오마니 손좀 만져 보자. 문구녕으로 디리 밀어 보라”구 했다. 범이 손을 디리밀어 주느꺼니 맨제 보구 “우리 오마니 손은 보들보들한테 이 손은 깔깔하다. 오마니 아니다”구 했다. 범은 “내레 부재집이서 베를 매주느라구 손에 풀이 말라붙어서 깔깔하다. 날래 문 열라”구 과했다. 아털은 할수없이 문을 열어 주느꺼니 범은 방으루 들어와서 언나 젓 먹이갔다구 언나를 안구서 웃굴에 가서 잡아먹었다.¹⁵⁾

부잣집에서 품을 팔고 집에 돌아가는 어머니 앞에 나타난 호랑이가 떡도 모자라 그의 신체를 통째로 집어삼키고, 어머니의 옷을 입고 어머니 행세를 하며 어린 남매가 기다리는 집으로 가서 문을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하는 장면이다. 주목할 점은 아이들이 의심을 품을지언정 결국은 호랑이를 어머니로 받아들여 집 안에 들인다는 사실이다. 호랑이는 기억 속 어머니와는 달리 낮설고, 거칠고, 위협적이지만 호랑이는 일시적이거나 아이들의 ‘어머니’로 받아들여진다. 이 서사적 세계에서 어머니의 껍질을 쓴 호랑이는 곧 어머니로 등치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존재한다는 뜻이다.

인간의 어머니로 나타나는 동물 이야기의 다양한 결과 맥락은 인간과 동물의 구분이 근대 철학과 과학의 이름으로 공식화되기 이전의 서사를 담고 있다. 여러 서사적 형태와 시대에 걸쳐 변주되었지만 인간이 동물의 상징적 자식의 위치에 놓여 있다는 전제는 깨어지지 않는다. 인간과 동물이 계보를 공유하고, 인간됨과 동물됨의 속성이 뿌리를 공유한다는 상상은 인간이 만물의 지배자라는 근대적 인간중심주의와도 다르지만 진화생물학적 관점의 ‘인간도 결국 동물이다’라는 언술이 함의하는 바와도 다르다.

이들 이야기에서 동물은 물리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인간이 완전히 장악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고,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존재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인간과 마찬가지로 나름의 관념과 가치 체계를 지니고 있는 또 다른 ‘세계’로서 인간과 결합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여기에 반영된 동물이라는 비인간주체에 대한 인간의 오랜 관점은, 이어지는 장에서 검토할 오늘날의 대중적 동물 서사가 관계에 대한 전혀 다른 상상력에 기반하여 판이한 방향으로 쏠려가게 된 변화의 맥락을 선명히 드러낸다.

15) <해와 달이 된 남매>, 임석재, 『임석재전집2-한국구전설화 평안북도편』, 평민사, 1994, 126쪽.

3. 동물, 인간의 ‘가짜’ 자식

2023년 5월 28일, SBS <TV 동물농장>에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관한 특집이 방영되었다. 안내견 학교와 예비 안내견들의 훈련 과정, 시각장애인 김한숙씨와 안내견 대한이의 생활 등이 차례로 담겼다. 김한숙씨가 오랫동안 함께 지내다 은퇴한 안내견 새롭이가 보고싶다고 말하는 장면이 뒤따라 이야기는 은퇴한 안내견의 삶으로 이어진다. 새롭이의 행방을 좇은 끝에 등장하는 것은 용산 대통령 관저의 모습이다. 새롭이를 비롯한 여러 마리의 개들이 관저 마당을 뛰어 다니는 모습에 이어, ‘새롭이 아빠’, ‘새롭이 엄마’로 소개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카메라 앞에 앉는다.

이야기의 초점은 은퇴한 안내견의 삶이 아니라 ‘개 아빠’, ‘개 엄마’로서 대통령 부부와 ‘아이들’의 사연으로 옮겨 간다. 여러 마리의 반려견을 키우게 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유산을 겪은 뒤 유기견을 임시보호하며 ‘아빠(윤석열 대통령)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잠시 고통을 잊으시더라’는 영부인의 답은 정확하게 개들을 ‘자식’의 위치에 놓으며 ‘유산의 아픔을 치유한 입양아’의 서사를 완성한다. ‘아이들’의 밥을 손수 챙기는 ‘아빠’의 모습과, 거기에 덧붙는 “아이들은 엄격한 ‘엄마’보다 너그러운 ‘아빠’를 좋아한다”라는 설명은 정상가족의 다정한 남성 가장이라는 익숙한 코드를 환기한다. 에피소드는 대통령 부부가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고 말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된다.

주인공이 대통령 부부라는 점을 제외하면 낯설거나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다. 오히려 <TV 동물농장>과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자주 그려져 온 인간과 반려동물의 관계에 관한 서사이다. 인간과 동물이 ‘가족’을 이루고, 인간은 동물의 ‘부모’로서 동물을 돌보며, 동물은 인간의 ‘자식’으로서 인간에

게 감정적 위안이 된다는 구도는 오늘날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상상하는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일반적인 형태가 되어 왔다.

동물이 신앙의 대상으로 존재한 시대, ‘짐승’ 혹은 ‘가축’으로 불리었던 시대를 지나 ‘애완동물’, ‘반려동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까지의 변화는 인간 결의 동물을 더욱 가깝고 친밀한 존재이자 가족 구성원으로 위치짓게 된 변화를 반영한다. 동물 결의 인간을 스스로 칭하는 방식이 ‘주인’에서 ‘보호자’로, 보다 일상적으로는 ‘엄마’, ‘아빠’와 같은 가족 호칭으로 변화한 것이나 반려동물과의 생활을 묘사할 때 ‘입양’이나 ‘양육’과도 같은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된 것도 마찬가지의 흐름이다. 2장에서 검토한 어머니 동물이 토렘이나 창조신으로서의 신화적·상징적 의미를 띠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오늘날 동물의 부모를 자처하는 인간은 동물과의 관계를 ‘인간적’인 가족 관계의 문법으로 재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0년대 후반 이후 금융권에서 반려동물 양육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매해 발행하거나¹⁶⁾ 반려동물 관련 금융상품을 출시하게 된 것¹⁷⁾은 반려가구 및 반려인 수의 증가가 산업 차원에서도 유의미한 영역을 차지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2023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 비율은 28.2%로 집계되었는데, 2010년 조사의 17.4%에 비해 62%의 증가율을 보인 것이었다.¹⁸⁾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552

16) KB국민은행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2017년부터 매해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양육과 지출 현황, 관련 서비스 실태와 수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17) KB국민은행의 ‘펫코노미 패키지’와 하나은행의 ‘펫사랑 적금’, BNK 부산은행의 ‘펫적금’, 신한은행의 ‘솔 펫’ 등 반려동물 관련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뿐 아니라 반려동물 관련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금융권의 반려동물에 관한 주목도는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18)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 비율 28.2%…역대 최고>, 『데일리벳』, 2024.3.4., 접속일: 2024.5.15.,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206485>.

만 가구, 1,262만 명이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¹⁹⁾ 해당 보고서에서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이다’라는 항목에 대해 반려인은 81.6%, 비반려인은 63.7%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²⁰⁾

이 모든 현상에서 눈에 띄는 공통된 사실은 반려동물이 인간의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될 뿐 아니라 당연스레 인간의 자식 위치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이다’라는 항목을 대다수가 긍정한다는 것은 반려동물이 가족의 어떤 구성원으로도 상상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동물이 인간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즉 ‘입양’과 ‘양육’, ‘보호’의 대상으로 상정된 세계에서 동물이 인간의 자식, 그것도 다 자라지 않은 자식 외의 역할로 상상되기는 쉽지 않다.²¹⁾ 동물은 더이상 인간이 장악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미지의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고 인간이 모르는 일이 없고 인간이 통제하지 않는 영역이 없는 지구에서 인간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취약한 존재로 자리한다.

〈TV 동물농장〉에서 구현되는 대통령의 가족 서사도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이러한 관념 위에 성립한다. 주목할 점은 동물이라는 취약한 비인간존재와 인간이 꾸리는 가족이 탈규범적인 가족의 형태에 대한 상상력을 넓히는 대안적 가족의 모습으로 그려지기보다는 상존하는 정상가족의 관계 구도와 틀 속에 위치하며 그것을 되풀이한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자녀가 없다는 사실은 후보 시절부터 주목되어 왔는데, 대통령 후보 부부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들이 정상가족의 이상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약점’과 같이 다루어져 왔

19) 황원경·이신애,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3, 6쪽.

20) 황원경·이신애, 위의 책, 6쪽.

21) 전의령은 반려동물과 유사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문화가 보편화된 현상에 얽힌 다양한 욕망과 감정을 이푸 투안의 ‘펫’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한 바 있다. 전의령, 『동물 너머』, 돌베개, 2022, 15-25쪽.

다.22) 그 ‘약점’은 ‘아이를 가졌으나 유산으로 잃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방식으로 서사화되었는데23), ‘개인·가족사의 비극’과 같이 위치지으면서도 정상성의 테두리를 벗어나거나 건드리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이 ‘약점’을 다루는 다른 하나의 방향은 반려동물의 ‘아빠’로 호명되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었다. 윤석열 당시 후보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반려견 ‘토리’의 모습과 함께 스스로를 ‘토리 아빠’로 칭하는 글들을 활발히 게시했고24), 소위 ‘개 사과’ 논란25)으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폐쇄한 뒤에도 다시 트위터를 통해 자신을 ‘토리 아빠’로 소개하며 등장하기도 했다. 당선인 시절에는 개들과 한강에서 산책하는 모습이 뉴스화되며 ‘자녀가 없지만 반려동물을 친자식처럼 여기는 모습’이 부각되기도 했다.26)

당선 후 1년이 막 지난 시점에서의 <TV 동물농장> 출연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TV 매체에서 대통령 부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또 공식적으

22)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를 비교하며 “두 아이의 엄마 김혜경 vs 토리 엄마 김건희”라는 글을 SNS에 게재한 사건이 이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후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이를 비판하며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씨는 본인들이 원해서 아이를 낳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며 자식이 없다는 사실을 변호하듯 감싼 장면은 그것이 대통령 후보 부부의 ‘약점’이라는 관념을 오히려 부각한다.

23) <확 바뀐 김건희, 감성 호소...울먹이며 아이 유산도 털어냈다>, 『중앙일보』, 2021.12.16., 접속일: 2024.5.1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5561>.

24) <‘개스타그램’ 시작한 윤석열...“안녕하세요 토리네 토리에요”>, 『조선비즈』, 2021.7.28., 접속일: 2024.5.15.,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1/07/28/5NW5KYU75CNFBRCUEUSIAX6V4/>

25)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 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데 대해 비판이 일자 인스타그램에 반려견 ‘토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과 함께 ‘사과는 개나 주라’는 의미로 짐작되는 게시글을 게시하여 다시 비판의 대상이 된 일이다.

26) <“토리, 이리 와!”...반려견 데리고 한강공원 나간 尹당선인>, 『연합뉴스』, 2022.3.14., 접속일: 2024.5.15.,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4080300534>.

로 반려동물의 ‘부모’로서 호명하는 장면이다. 특집 주제를 의식해 안내견 관련 정책에 대해 짧게 언급하고 있지만, 주된 초점은 ‘동물-아이들의’ ‘부모’가 된 대통령의 가족 서사다. 방송 이후 해당 에피소드를 다룬 기사들에는 하나같이 대통령 부부를 ‘아빠’, ‘엄마’로 지칭하는 제목이 붙었다.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인간의 행위는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이 관계가 유사 혈연 가족 관계, 그것도 부모-자식의 관계로 재현될 때 그것이 갖는 상호 돌봄의 지점은 가려지고, 자애롭고 관용적인 인간의 시혜적 태도만을 전면화하는 서사만이 부각된다.²⁷⁾ 윤대통령의 〈TV 동물농장〉 에피소드에서 대통령의 ‘자식들’로 소개된 은퇴한 안내견 새롭이, 유기견 나래, 교통사고를 당해 17번의 수술을 거친 토리의 사연은 그들의 삶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한 대통령의 수고와 노력, 자애로움을 전하는 데 소용된다. 수신자도 발신자도 인간인 상호 칭찬의 장에 다만 동물이 매개되고 있을 뿐이다.

무엇보다 대통령 부부가 사회적으로 이견이 없는 합당한 ‘부모’의 형태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최대의 목적으로 삼은 서사에서 인간 부모와 동물 자식의 관계는 자식이 ‘부득이’ 동물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정상성의 각본에 충실한 요소들로만 구성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가족의 서사가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상한 아버지가 중심에

27) 구조한 동물이거나 은퇴한 동물, 병든 동물을 입양한 경우에 인간은 ‘부모’를 넘어 그들의 자비로운 ‘구원자’가 된다. 사업가 백종원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방치된 폐건물에 유기된 개를 구조하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했는데, 구조한 개의 치료비가 수백 만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한 마리 사겠다.”라고 농담을 던지는 장면과 그것을 유쾌한 장면으로 받아들이는 대중적 반응은 그 개의 삶을 말 그대로 자신이 ‘구원’했다는 의미를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인간중심적 감각을 드러낸다. (<[백종원 시장이 되다_예산 24화] 더본코리아 서열 1위를 노리는 신입 직원(?)>, 유튜브 채널 『백종원 PAIK JONG WON』, 2023.9.4., 접속일: 2024.5.15., <https://youtu.be/dgFrAF6seuM>.)

농인 ‘바람직한’ 정상가족의 구도를 취하되 자식이 인간 혈연이 아니라는 사실은 ‘부득이한 가족사의 아픔’으로서 ‘변호’되고 있는 이유이다.

반려동물이 대통령 가족의 서사에 등장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들에게서도 드물지 않은 일이었다.²⁸⁾ 다만 기존의 ‘퍼스트 독’이 대통령 부부와 그 자녀들이 이루는 규범적 정상가족 서사에 더해진 부가적 요소와 같은 존재로 서사화되곤 했다면, 윤대통령 부부의 경우 반려동물이 ‘정상가족’의 규범적 서사를 완성하는 데 핵심적인 존재로 등장한다는 점이 다르다. 말하자면 그들에게 ‘결여된’ 자식의 자리에 동물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서사가 구성되고 있다는 뜻인데, 얼핏 반려동물에게 훨씬 큰 역할과 관심을 할애하는 듯한 모양새이나 인간과 동물의 위계가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TV 동물농장〉 에피소드의 말미에 윤대통령 부부가 한목소리로 외치는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슬로건은 반려동물 인식 개선 관련 구호 가운데 가장 성공한 문구일 것이다. 반려동물을 상품이나 물건이 아니라 생명을 지닌 개체로서 대해야 한다는 관념이 상식과도 같이 자리잡은 데에는 이 구호의 역할이 적지 않다. 그런데 이 말이 윤대통령의 가족 서사를 갈무리하는 결론의 자리에 놓일 때 복잡한 맥락이 생겨난다. ‘입양된’, 인간의 ‘자식’으로서 반려동물의 위치가 유의미해지는 것이 오로지 그들이 인간의 정형화된 가족 역할의 틀거리 안에 놓일 때라는 사실을 노골화하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이 장면의 맥락이 더욱 문제적인 지점은 이것이 차용하고 있는 정상가

28)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에게 ‘퍼스트 독’이 있었는데, 이들은 대체로 대통령의 사적 시간을 함께 하며 일할 때와는 다른 자애로운 아버지로서의 대통령의 이미지를 구현하는 장면에서 등장하며 대통령 부부와 그 자녀가 이루는 규범적 정상가족의 플러스 알파와 같은 존재들로 재현되었다.

족 서사의 코드가 이미 내포하고 있는 한계와도 관련된다. 한국은 혈연 가족이나 친지 간의 호칭이 사회적 관계에서의 호칭으로도 통용되는 사회로, 이는 곧 사회적 관계의 기본값이 (혈연) 가족으로 상정되어 가족이 아닌 많은 관계가 가족의 문법과 역할로 이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려인이 스스로를 반려동물의 ‘엄마’ 혹은 ‘아빠’로 칭하는 문화는 돌봄으로 연결된 관계를 ‘가족적인’ 것으로, 특히 부모-자식 관계로 상상하는 가족 관계의 문법을 많은 사람들이 부대낌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과 동물 사이의 돌봄이 사회적으로 보편화된 부모-자식 관계에 대한 이해처럼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의 일방향적인 시혜로 재현되는 것이 무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사적 구도에서 인간과 동물 사이 상호적 돌봄의 가능성은 차단되고, 동물의 삶의 조건을 결정짓는 인간의 근본적 차원의 통제와 착취는 가려진다. 애정과 보호라는 이름으로 통제하고 길들이는 관계의 권력 구도를 불가피하고 낭만적인 것으로 의미화하는 ‘딸바보’의 서사적 매커니즘과 같이²⁹⁾, 동물은 언제나 인간의 대체물로서 자리하며 혈연주의적 가족 관념과 인간과 비인간을 구분하는 생명의 위계화에 동원된다. 후보 시절 당내 경선 토론에 참가한 윤석열 대통령이 개 식용 문제에 대해 ‘반려동물은 가족에 준하여 대우해야 한다’는 입장의 근거로 ‘식용 개는 따로 키운다’는 사실을 제시한 장면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반려동물이 놓여 있는 위계화된 생명이라는 조건을 선명히 보여준다.

한편 동물을 돌보는 인간의 존재는 칭송이나 자찬의 대상일 뿐 아니라 경멸과 혐오의 대상이기도 하다. 인간이 동물의 부모 노릇을 하는 것이 온당치 않거나 부적절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종류의 서사들인데, 얼핏 칭송

29) 허윤, 「‘딸바보’ 시대의 여성혐오 - 아버지 상(father figure)의 변모를 통해 살펴 본 2000년대 한국의 남성성」, 『대중서사연구』 제22권 4호, 대중서사학회, 2016, 279-309쪽.

되는 동물 부모 인간의 이야기와 대척점에 있는 듯 보이지만 인간 혈연 자녀의 유사물 혹은 대체물로 다뤄지는 동물의 불완전하고 타자화된 위치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핵심에 자리한 관념은 다르지 않다.

한국에서 길고양이를 돌보는 여성을 지칭하는 ‘캣맘’과 그에 대한 혐오의 서사는 동물 혐오와 여성혐오, 모성혐오가 섞여들어가는 지점을 보여준다. 동물에 대한 여성의 돌봄이 ‘극성’이나 ‘과잉’으로 규정되어 사회적 징치와 계도의 대상으로 간주되는 장면인데, 길고양이와 ‘캣맘’에 대한 혐오와 폭력의 중심에는 재생산과 돌봄이 소위 ‘여성적’ 자질이자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사회 공공의 자원으로서, 안정적인 출생율과 인구 유지에 복무해야 한다는 관념이 자리하고 있다. 인간 아이의 어머니여야 하는 여성들이 길고양이의 어머니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동물의 부모인 인간을 부정하는 이 장면에서도 핵심은 동물이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가짜’ 자식이라는 관념이다. 인간이 아닐 뿐더러 혈연도 아닌 동물은 혈연이자 인간인 (가상의) ‘진짜’ 자식과의 관계에서 그에 못 미치는 존재이거나 그가 있어야 하는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침입자이자 위협으로 규정된다.

‘가짜’ 자식 동물의 존재는 저출생의 원인과 반려동물 인구의 증가를 연관짓는 서사에 등장하여 문제의 원흉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이른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개 키우느라 자식 안 낳는다”로 요약되는 저출생의 서사들은 동물의 부모인 인간에 대한 찬사와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반려동물 인구의 증가와 함께 저출생 시대 출생아 수 감소와 미혼가구 증가 등의 지표를 나란히 놓는 분석 기사들의 관점은 인간 아이의 출산과 양육에 들어갈 여성의 재생산 능력이나 돌봄이라는 자원을 ‘개’에게 허비하고 있다는 문제 설정에서 출발한다.

그런 점에서 부모-자식 관계로 그려지는 동물과 인간에게 쏟아지는 혐

오는 인간 중심의 정상가족 서사에서 자식 역할로 재현되는 동물의 서사가 지닐 수밖에 없는 함정이다. 정상가족이 기준이자 규범으로 자리한 서사적 세계관에서 '비정상적' 관계나 욕망에 주어지는 혐오와 공격을 동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그 관계를 긍정적인 것으로 그리든 부정적인 것으로 그리든, 이러한 인간의 혈연 중심 정상가족 서사에 놓인 동물은 언제나 '모자란' 가족일 수밖에 없다. 이 '모자람'에는 혈연주의와 종차별주의가 긴밀히 개입하고, 여성과 어머니를 매우 칭송하거나 폄훼하는 여성혐오와 모성혐오의 논리를 그대로 공유한다.

4. 동물 가족이 매개하는 가족 정상성의 서사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옆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의 알을 꺼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에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딱딱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안도현, 〈스며드는 것〉)

안도현의 잘 알려진 시로, 간장계장을 만드는 과정을 계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감동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작품이다. 그러나 시가 취하고 있다는 ‘계의 관점’이란 무엇일까? 계의 시선을 빌어, 혹은 계를 화자로 내세워 쓴 시라면 그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시에 대한 보다 합당한 설명은 인간 여성-어머니에게 인간이 기대하는 종류의 희생적인 ‘모성애’의 내용을 계라는 소재를 경유해 전달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계의 모성애’보다는 오히려 어머니라는 젠더 역할, ‘모성애’라는 속성에 대한 대상화와 함께 동물에 대한 타자화가 섞여들어있는 지점을 선명히 보여주는 서사라는 뜻이다. 이처럼 인간 여성의 ‘모성애’에 대한 전형적인 규범을 적극적으로 차용하는 ‘감동 서사’는 그 소재가 동물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인간의 이야기를 직접 다루지 않고 동물을 경유하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지점이 있다. 인간의 경우를 두고 직접 이야기하기에는 지나치게 노골적이라 민망한 내용을 동물을 경유해 표현하면 ‘본능적’ 감정이라는 표지 아래 ‘자연스럽게’ 읽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가 ‘계의 관점’을 담고 있다는 평가는, 계의 서사를 다분히 인간중심적 관점에서 재현하고도 그것이 지우고 있는 ‘계의 관점’을 의식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물의 서사적 재현을 이중의 착취로 만든다. 오늘날 패턴화된 동물 가족의 감동 드라마는 이러한 전형성을 공유한다. 인간의 이야기를, 동물이라는 소재를 경유해서, 어쩌면 더욱 노골적으로 ‘정상성’에 경도된 서사의 형태로 전달한다는 것이다. 동물이 인간중심적

규범을 전달하기 위한 우회처로 동원되고 있는 장면이다.³⁰⁾

동물이 인간의 가족 규범과 역할에 종속된 대상으로 상상되는 시대에, 이제 ‘어머니’로서 동물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는 등장할 수 없는 형상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동물로만 구성된 동물 가족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전과는 또 다른 양상으로 ‘어머니’ 동물의 서사에 대한 어떤 열광이 존재한다. 인간의 ‘어머니’인 동물은 더이상 신성화의 대상이 아니지만, 동물을 경유하여 표현되는 인간적 ‘모성’은 오히려 적극적인 신성화의 대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현실에 존재하는 동물의 존재로부터는 신성성의 요소를 박탈했지만, 동물의 상징적 서사에 부여되어 온 신성성이라는 자원은 자연화된 ‘모성’이라는 개념을 칭송하는 것으로 돌려 소용하고 있는 것이다.

동물 가족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낯설거나 새로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간사를 우회적·비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고전적인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화나 그림책, 동요 속 동물 가족이 가상의 캐릭터로서 인간의 역할을 빗대어 표현하는 상징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오늘날 동물 가족의 서사는 실재하는 동물 개체들을 가족 역할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현실적 조건과 구분되기 어렵다.

삼성 에버랜드의 자이언트판다 ‘바오 가족’의 이야기는 이러한 서사 가운데 최근 가장 성공한 콘텐츠이다. 이들의 이야기는 <TV 동물농장>은 물론이고 에버랜드의 유튜브 채널을 비롯한 각종 SNS 창구와 그에 기반한 도서, TV 뉴스와 언론 기사 등을 통해 활발히 생산되었다. 인기의 도화선

30) 이동신은 왕상한의 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에서 희생적 모성이 어미 흑등고래의 모습에 비유된 것을 예로 들어 동물이 문학에서 ‘순수함’의 표상이자 인간 감정의 은유로 활용된 오랜 역사를 지적한 바 있다. (이동신, 「동물, 감정, 그리고 문학적 상상력」, 권현의 외, 『동물의 품 안에서』, 포도밭출판사, 2022, 69-70쪽.)

이 된 것은 판다 ‘푸바오’의 탄생이다. 자식이 없던 ‘아이바오’와 ‘리바오’의 사이에 처음 생긴 자식 ‘푸바오’의 존재로 ‘바오 가족’이라는 가족 서사의 코드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푸바오의 탄생은 여러 차원에서 크게 주목된 장면이었다. 대중적으로는 TV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국내 최초로 판다의 ‘자연 번식’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육사의 말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해서³¹⁾ 그 귀추와 성공 여부가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TV 동물농장>과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아이바오의 임신과 출산, 육아 과정을 여러 차례 특집으로 다루기도 했다.³²⁾ ‘자연 번식’으로 태어난 판다라는 사실이 ‘푸바오’와 ‘루이바오’, ‘후이바오’의 탄생 이야기를 다룬 어떤 콘텐츠에서도 빠지지 않고 강조되는 것은 ‘자연 번식’의 성공이 이 출산이 대중적 주목의 대상이 된 핵심적 요소였음을 나타낸다. 암컷 판다의 가임기가 1년에 한 번 2-3일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나 수컷의 낮은 번식욕으로 인한 판다의 낮은 출생율에 대한 거듭되는 강조는 이들의 결합을 필연으로 위치짓는 동시에 기적적인 사건으로서 극화하는, 이성애적 결합의 익숙한 서사를 재연한다.

‘바오 가족’의 가족 드라마에서 클라이막스는 출산 장면이다. 빠짐 없이 등장하는 장면은 출산이 임박한 어미 동물의 변화와 사육사들의 걱정어린 모습, 산고 끝에 출산하고 새끼 동물을 돌보는 어미 동물의 모습이다. 이 장면들을 포착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화면 편집과 자막의 내용,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보며 MC들이 엮는 걱정과 감탄어린 말들, 이 이야기의 줄기를 이끌어가고 간혹은 동물의 심정을 ‘대신’ 발화하기도 하는 내레이션, 판

31) <유 퀴즈 온 더 블록> 15회(2019.4.30. 방송)

32) <TV 동물농장> 981회 ‘국내 최초 아기판다 탄생’(2020.8.9. 방송), 1004회 ‘국내에서 처음 태어난 아기 판다 ‘푸바오’의 성장기’(2021.1.17. 방송), 1133회-1134회 ‘아이바오 쌍둥이 자매 출산기’(2023.8.13.-20. 방송), 1142회 ‘동물원에 무슨일이쥬?’(2023.10.22. 방송)

다의 자연 번식이 얼마나 드물고 어려운 일인지를 강조하는 전문가와 언론의 말들은 동물의 출산 장면과 그의 ‘모성’을 경건하고, 신비롭고, 신성한 것으로 그리는 데 일조한다. 이로써 이 출산 장면을 목격하는 시청자·관객들도 이러한 서사적 세계관의 일원으로서 판다의 출생을 집단적 경사로서 축하하고 감동하게끔 하는 것이 이 드라마의 완성이다.

이 ‘자연 번식’의 감동 서사를 떠받치는 것은 한국에서 길러낸 자이언트 판다 ‘바오 가족’의 흠결 없는 ‘정상성’에 대한 자부(自負)의 감정이다. ‘자연 번식’에 대한 강조는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판다의 인공수정에 대한 비판과 맞물려 있는데, 인공수정이 폭력인 이유와 자연 번식이 바람직한 이유는 분리되지 않는 쌍을 이루어 등장한다. 요컨대 오로지 종족 번식만을 위해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행되는 인공수정과 강제임신과는 달리 ‘자연 번식’은 암컷과 수컷의 ‘자연스러운’ 끌림에 의해 성사된 것이기 때문에, 출산 후 어미 판다가 새끼에 대해서 갖는 ‘모성애’의 양상이 훨씬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는 내용이다.³³⁾ 그리하여 ‘자연 번식’으로 구성된 판다 가족은 판다의 ‘할아버지’나 ‘삼촌’ 등으로 불리는 사육사들의 헌신과 함께 ‘한국적’ 가족 문화의 승리를 증명하는 것과도 같은 의미를 획득한다.³⁴⁾

33) ‘바오 가족’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향유하는 팬 커뮤니티에서는 인공수정으로 낳은 새끼에 대해 공격성을 보이거나 냉랭한 태도로 대하는 판다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새끼를 ‘자연스럽게’ 돌보는 아이바오의 모습을 ‘자연 번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설명하는 서사가 지배적이다.

34) 2024년 4월 초 이루어진 ‘푸바오’의 중국 반환이 국내 ‘바오 가족’ 팬들에게 우려스러운 사건이자 가족의 비극으로 위치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푸바오의 중국 반환을 전후하고 중국의 판다 사육 환경과 중국 사육사들의 태도가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데, 푸바오를 걱정하는 정서의 핵심은 가족만큼 자상하고 진심어린 한국의 사육사들과는 달리 냉정하고 기계적인 태도의 중국 사육사의 관리 아래서는 더이상 ‘가족적’ 배려나 친밀함 등을 찾아볼 수 없으리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구도에서 간과되고 있는 것은 이 동물 가족의 서사가 철저히 인간적 관점에서 재현된 대리 발화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이다. '바오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익숙한 가족 역할과 관계의 서사가 부여되고 그것이 마치 가족 시트콤과 같은 형태로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구도의 서사를 기획하고 생산하는 이들의 존재는 필연적인 동시에 절대적이다. 특정한 장면에 주목한 화면 편집이나 동물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자막, 특수효과와 성우의 목소리, 특정한 행동의 의미에 대한 사육사를 비롯한 전문가의 해설, 동물의 1인칭 시점에서 서술된 '일기' 등의 요소는 모두 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리 발화하여 특정한 종류의 서사로 수렴하게끔 기능한다. 때문에 '바오 가족'의 서사를 향유한다는 것은 이 서사화의 과정에 개입한 모든 주체에게 '바오 가족'의 목소리를 대리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인의 목소리로 대리 발화된 계의 모성처럼, 서사의 생산자와 향유자가 모두 인간인 콘텐츠에서 동물은 필연적으로 인간이 발신하는 메시지를 매개하는 복화술 그림으로 존재한다.

매체를 통해 재현된 어떤 대상의 서사가 매개된 것이며, 기획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화면에 비치는 것이 다름 아닌 동물이라는 점은 이 서사의 매개 영역을 가리고 '본능'이나 '자연'에 의한 낯것의 현상이 곧장 전달된 듯한 착시를 불러일으킨다. '역시 어머니란 정말 위대하네요', '아무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바로 새끼를 돌보다니 모성애가 대단하네요', '동물이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요'와 같은, 출산 장면을 바라보는 MC들의 말이나 편집자가 화면에 붙이는 자막의 내용은 그들이 찬미하고 있는 다분히 인간중심적인 가치들을 동물의 '본능'에 의한 것으로, 따라서 무엇도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자연 법칙으로서 그려낸다.

이것은 뭉뚱그린 '동물'이라는 범주를 곧장 '야생'이나 '본능', '자연'과 같

은 관념과 대치시키는 동물에 대한 타자화에 근거한다. 인간과 동물이라는 범주를 대립하는 것으로 놓고, 인간을 문명에, 동물을 자연에 놓는 근대적 상상력이 반영되어 있다. 인간에 대립하는 범주로서 동물과 그 '자연적'인 '동물성'이 동시에 찬미와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은 20세기 초 1세계의 인류학 연구자들이 스스로를 '문명'의 위치에 놓고 북미나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을 '야만'으로 표상한 것과 마찬가지로 반복한다. 그들의 '야만성'을 '미개한' 것으로서 경멸하든, 혹은 인류의 '원형'이나 '본질'에 가까운 모습으로서 신성화하든 문명과 야만의 위계 아래 구성되어 그것을 재확인할 따름이라는 점에서 그 논리는 다르지 않다.

결국 '바오 가족'과 어머니 동물의 이야기에 대한 열광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은 동물로서 '바오 가족'의 모습 그 자체이기보다는 '동물'이라는 표상을 경유하여 표현되는 이분법적 젠더 역할과 이성애 정상성의 규범, 거기에 근거한 '안정적' 정상가족의 관념이다. 인간을 대상으로 삼기에는 민망하지만, 동물을 통하면 그 '자연'이라는 표지 뒤에서 마음껏 욕망할 수 있는 노골적인 '정상성' 서사의 현재이다.

5. 나오며

앞선 내용으로부터 드러나는 것은 동물의 이야기가 인간의 정상가족의 틀에 포섭된 형태로 재현된다는 사실이 그것이 가족 정상성과 젠더 역할, 돌봄과 재생산에 관한 규범적 서사로 기능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조건이라는 점이다. 동물을 동원하는 일은 고루한 정상가족의 관념이 더욱 강력하게 자연화되거나 정당화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동시에 동물은 언제나

인간 존재의 대체물이거나 인간적 규범이 매개되는 대상으로서 소외되는 착취적 구조 속에 인간-동물 관계의 상상력이 제한된 현실이 반영된 결과이다.

어느 때보다 동물과의 관계 거리가 '가까운' 것으로 상상되는 시대에, 그 친밀성이 누구의 어떤 관점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친밀성의 코드를 경유하여 이루어지는 비인간 존재에 대한 위계화와 타자화의 전략, 이를 통해 은폐되거나 정당화되는 인간중심적 규범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한국 구비문학대계』 DB
유몽인, 『어우야담』, 신익철·이형대·조용희·노영미 역, 돌베개, 2006.
일연, 『삼국유사』, 이민수 역, 을유문화사, 2013.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평민사, 1994.

2. 논문과 단행본

- 김선자, 『중국 소수민족 신화기행』, 안티쿠스, 2010.
김영희, 「구전이야기 현지조사연구의 문제와 시각」, 『구비문학연구』 제17호, 한국구비문학회, 2003, 451-500쪽.
김영희, 「구술 전승 현장 분석의 시각 전환을 위한 시론-‘연행 주체’는 누구인가」, 『민속연구』 제22호,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11, 5-64쪽.
김유미, 「한국 설화에 나타난 곰의 문학적 형상화와 여성 - <곰나루>와 <곰과 함께 산 인제현 백성>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40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20, 111-142쪽.
김혜정, 「『於野談』소재 <암곰과 함께 산 麟蹄縣 백성> 설화 연구」, 『동양고전연구』 제45호, 동양고전학회, 2011, 127-154쪽.
나카자와 신이치, 『곰에서 왕으로-국가, 그리고 야만의 탄생』, 김옥희 역, 동아시아, 2003.
이동신, 「동물, 감정, 그리고 문학적 상상력」, 권현익 외, 『동물의 품 안에서』, 포도밭출판사, 2022.
정향균, 『동물 되기』, 세창출판사, 2020.
허윤, 「‘딸바보’ 시대의 여성혐오 - 아버지 상(father figure)의 변모를 통해 살펴본 2000년대 한국의 남성성」, 『대중서사연구』 제22권 4호, 대중서사학회, 2016, 279-309쪽.
황원경·이신애,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3.

3. 기타자료

- 〈'개스타그램' 시작한 윤석열...“안녕하세요 도리네 토리에요”〉, 『조선비즈』, 2021.7.28., 접속일: 2024.5.15.,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1/07/28/5NW5KYYU75CNFBRCUEUSIAX6V4/>.
- 〈[공주]'고마나루' 응진단 수신제〉, 『투데이충남』, 2019.4.18., 접속일: 2024.5.15., <http://www.todaychungnam.net/news/articleView.html?idxno=91279>.
-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 비율 28.2%...역대 최고〉, 『데일리벳』, 2024.3.4., 접속일: 2024.5.15.,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206485>.
- 〈[백종원 시장이 되다_예산 24화] 더본코리아 서열 1위를 노리는 신입 직원(?)〉, 유튜브 브 채널 『백종원 PAIK JONG WON』, 2023.9.4., 접속일: 2024.5.15., <https://youtu.be/dgFrAF6seuM>.
- 〈“토리, 이리 와!”...반려견 데리고 한강공원 나간尹당선인〉, 『연합뉴스』, 2022.3.14., 접속일: 2024.5.15.,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4080300534>.
- 〈확 바뀐 김건희, 감성 호소...울먹이며 아이 유산도 털어냈다〉, 『중앙일보』, 2021.12.16., 접속일: 2024.5.1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5561>.

Abstract

Narrative of Animal Family in Anthropocentric Family Norms

Kim, Si-Yeon(Yonsei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representation of animals within the framework of "family narratives" among non-human entities, exploring the ways in which animals are incorporated into the narrative strategies of family norms. It examines how the interpretation and representation of non-human entities, such as animals, within human family narratives reveals a new aspect in which these narratives function as normative discourses related to the family. The representation of non-human entities within "human" narratives emphasizes the "universality" of their "human" value, while at the same time making the anthropocentrism mediated through non-human entities more overt.

The discussion begins by tracing contemporary narrative trends, drawing on Korea's narrative tradition, which historically imagined animals in family roles in classical narrative works. It then discusses contemporary narrative trends, indicating a fundamental shift in the perception of human-animal relationships. Focusing on the narrative strategy of a presidential couple aiming to construct a "proper" family narrative that conforms to norms of family normality, the analysis explores a narrative trend in which human and animal roles are reversed, positioning humans as the parents of animals. Lastly, by analysing the phenomenon of Everland's giant panda family, the "Bao Family", which has attracted popular attention, the narrative effects of imagining animal families in humanised roles, emotions and norms are explored.

Throughout, animals share the boundaries of normative narratives concerning family norms, gender roles, caregiving, and reproduction. By highlighting scenes

in which anthropocentric family norms are reinforced through the mediation of animals, this study hopes to stimulate an advanced discourse on the stratification and othering of non-human entities, as well as ongoing discussions about anthropocentric norms that are either obscured or justified through these strategies.

(Keywords: Animal, Family narratives, Anthropocentrism, Reproduction, Gender roles)

■ 논문투고일 : 2024년 5월 15일
논문심사일 : 2024년 6월 13일
수정완료일 : 2024년 6월 17일
게재확정일 : 2024년 6월 18일